



그린 스완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문혜정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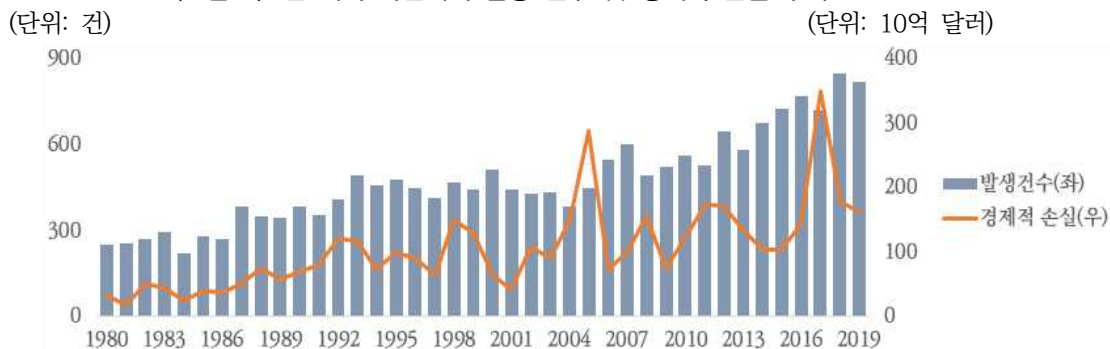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린 스완 충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최근 긴 장마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그린 스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인수 및 투자 등 핵심 경영활동에 기후변화 전략을 통합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연구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린 스완(Green Swan)¹⁾’ 충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높아지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9년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820건)는 1980년(249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임
- 그린 스완 리스크는 블랙 스완 리스크와는 달리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만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림 1〉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 및 경제적 손실 추이



자료: Munich Re, NatCatSERVICE database

1) ‘그린 스완’은 생태계 및 기후의 변화로 인한 경제·금융 위기를 뜻하는 용어로,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사건을 뜻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임; BIS(2020. 1), “The Green Swan”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그린 스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후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회복력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의 조성”이 필요함을 선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시함²⁾
- 2017년 12월 설립된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자발적 논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11월에 가입함³⁾
 - 지난 8월 13일, 금융위 주제로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공시 확대 추진 등의 계획을 발표함⁴⁾

■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 배상책임 리스크(Liability Risk) 등의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금융안정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급보험금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 회사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전환 리스크)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좌초 자산(Stranded Asset)⁵⁾ 리스크에 노출된 금융자산이 재평가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침
 - 국내 보험회사의 탈(脫) 석탄 참여가 증대되는 경우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집약적 산업을 줄여나감으로써 해당 산업의 보험료 감소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상책임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배상책임 리스크가 발생함
 - 향후 보험회사에 대한 탄소 감축 요구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시 의무가 강화될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다가오는 기후변화 및 감독정책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2) UN(2015), *Paris Agreement*, Article 2 - 1(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3) 2020년 7월 기준 69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와 13개의 옵저버(Observer)가 NGFS의 회원으로 참여 중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8. 13),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참조

5)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화석연료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산들을 좌초 자산이라고 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 좌초 자산 리스크에 노출되어 기업 가치 하락, 자산 손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석탄, 석유, 가스), 에너지집약적 산업(임업, 제지, 금속 및 광업) 등이 있음; BIS(2020. 1), “The Green Swan”, p. 19

- (물리적 리스크)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지급보험금과 보험회사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자산매입 전략을 세우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야 함
- (전환 리스크) 보험 및 투자 포트폴리오 탄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리스크를 파악하고, 주요 사업전략에 배치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언더라이팅, 자산투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함
 - 전략의 이행 시기를 앞당겨 기후변화 및 감독정책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배상책임 리스크) 언더라이팅 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리스크를 평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소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kiri

〈표 1〉 보험회사가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대응 방안

구분	주요 원인	영향	대응 방안
물리적 리스크	기후 관련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도 증가	지급보험금 증가	· 기후 시나리오 분석 · 보험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재무건전성 평가, 자산매입 전략 수립
		보험회사 자산(부동산) 가치 하락	
전환 리스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응 노력	좌초자산으로 인한 투자자산 가치 하락	· 투자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보험인수, 자산투자 전략 수립 · 친환경산업 관련 신 시장 개척 · 이행시기를 앞당겨 감독정책 변화의 충격 최소화
		탄소집약적 산업의 보험료 감소	
책임 리스크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증가	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	언더라이팅 시 배상책임리스크 평가
		내부 소송비용, 평판리스크 발생	·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행 · 투명한 공시

자료: BIS(2020. 1), “The Green Swan”; CRO Forum(2019. 1), “The heat is on”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